

경제

광주은행, 지역과 함께 된다

초우량은행 발돋움

사상 최대 실적 '내실있는 성장'

광주은행은 지난해 지역 대표 증권 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또한 발로 뛰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광복할 만한 업무성과를 거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은행 최초 2회 연속 서비스품질 인증기업에 선정되는 등 또 다른 도약의 한계를 보였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지난해 광주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으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757억원을 기록,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부실 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대손충당금 796억원을 제외하고 거둔 실적이라 더욱 큰 성과다.

또 지난해 상반기 순영업이익도 26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5%나 늘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지역에

총자산 19조 ... 여·수신 점유율 30~40%

지방銀 최초 2회 연속 '서비스 품질' 인증

서 광주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30~40%에 달해 최고 수준에 이르며, 전남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을 강화하면서 여·수신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자산은 18조6800억원, 총수신은 12조3600억원, 총대출은 10조9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튼튼하고 내실있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금융권의 격심한 경쟁과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으로 새 주인을 찾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안정적인 지역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영업력 강화에 주력해 온 결과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지방은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과 성장성, 자산 건전성 등 경영 성적표

에 있어서는 여느 시중은행에도 뒤지지 않는 초우량 은행으로 성장했다.

▷지방은행 최초 2회 연속 서비스품질 인증=경제난을 겪는 지역 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소호명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육성하는 등 지역 중추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장관표창인 '서비스품질우수상'을 수상해 지방은행 중 최초로 2회 연속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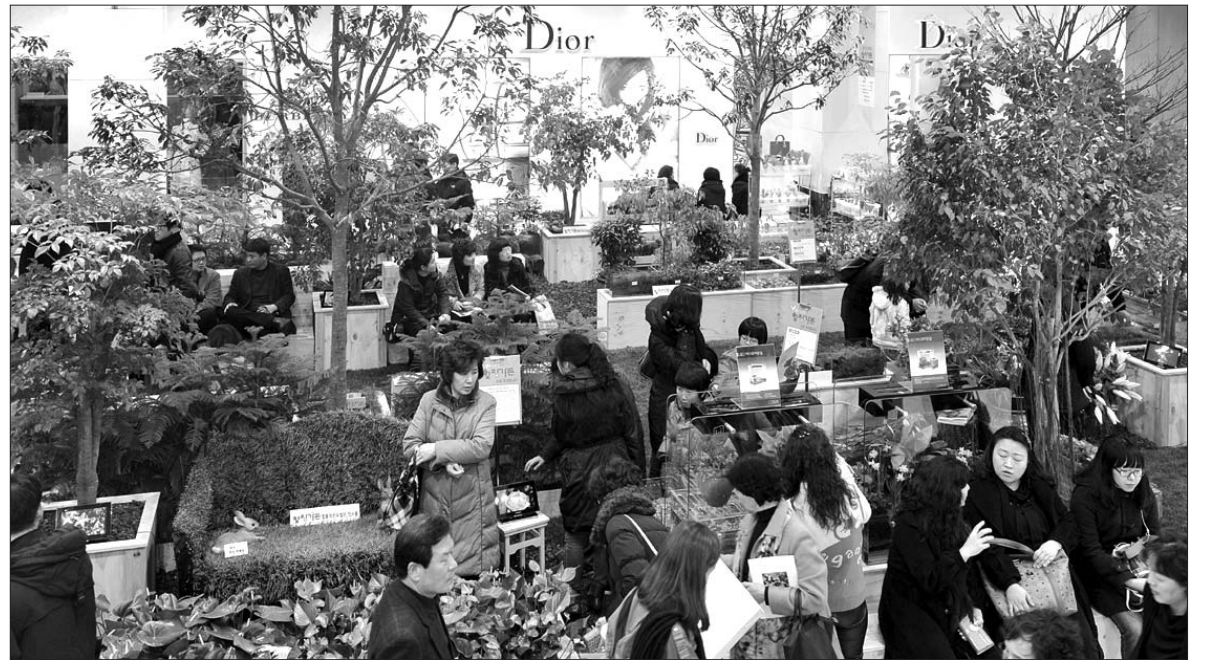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가 우

수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국내 유일의 정부주관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다.

광주은행은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서도 지역친화경영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경쟁력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또 소비자권익진진경영대상에서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기업 대상도 받는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역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지역 기업 중심의 경영으로 지역 중추의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신진국의 은행들처럼 100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초우량은행, 향후 세계 100대 은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세계백 '힐링가든' 전시회

11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1층 광장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힐링가든(Healing garden·치유의 정원)' 전시회를 개최했다. '힐링가든'에는 공기정화,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물 30여종이 전시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북 부가세 대상 48만3000명

25일까지 신고·납부 ... 구제역·AI피해자 세정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구제역·조류독감·족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북 납부대상자는 모두 48만3000명으로 개인사업자 43만4000명, 법인4900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5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명(개인 15만명, 법인 3만명) 증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납세자를 위해 ▲2010년 하반기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 하반기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현재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일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연기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TA활용 맞춤 수출 '3-S프로젝트' 추진

광주세관

광주세관은 EU·미국 등 과 FTA 발효로 인해 무역비용과 관료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지역수출업체를 위한 맞춤형 FTA 활용 지원전략 '3-S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3-S프로젝트'는 조기기정(Speed), 전문가 양성(Specialist), 사후관리(Service)로 인증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수출기업 지원프로젝트다.

광주세관은 '3-S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기업이 FTA를 신속수출장동력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동일 원산지기준과 생산관리 유형이 비슷한 업종·업체를 분석해 우선 인증대상기업 선별 및 집중관리를 통해 한-EU FTA 발효전 까지 컨설팅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편성하고 대학생에게 세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 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 미니밴 콘셉트카 'KV7' 공개

북미 오토쇼 ... 정교한 디자인 호평

기아차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1 북미 국제오토쇼'에서 미니밴 콘셉트카 'KV7(사진)'을 공개했다.

'KV7'은 실용성과 SUV의 스포티함을 결합한 신개념 미니밴 콘셉트카로 쏘울, 포르테 쿵, 스포티지R에 이어 기아차 디자인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V7'은 기아차가 쏘울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박스 스타일로 전면부 디자인에 패들리틱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해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세련되고 부드러운 외관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최고출력 285마력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발휘하는 세타II 2.0 G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매끄러운 변속감을 통한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미니밴에서는 세계 최초로 결빙 도어(gull-wing door·도어가 위로 열리는 방식)를 채택, 넓은 실내공간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톰 커언스(Tom Kearns) 기아차 미국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인은 "'KV7'은 미니밴의 실용성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SUV 느낌의 당당하고 스포티함을 더한 박스 스타일의 신개념 미니밴"이라며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으로 기능성, 실용성을 갖춘 'KV7'은 오늘날 고객들이 원하는 최고의 미니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Detroit Cobo Conference & Exposi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11 북미국제오토쇼(2011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NAIAS)'에 약 1190㎡(약 360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콘셉트카 'KV7'과 K5 하이브리드(수출명·오펜타 하이브리드), K5(수출명·오펜타), 쏘렌토R(수출명·쏘렌토), 쏘울 등 친환경차 및 양산차 등 총 17대를 전시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중·고교생

'기업 탐방' 5회 개최

광주시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대표 기업을 탐방하는 '청소년 아이 러브 지역기업' 탐방활동을 개최한다.

이번 탐방활동은 겨울방학기간 동안 진행되며, 탐방기업은 광주지역 대표 기업인 기아자동차와 삼성증권, (주)인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이다. 일정은 11일, 13일, 18일, 21일, 26일 등 다섯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경제 흐름과 주요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이해, 광주지역 경제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홈페이지(www.ecplus.co.kr)나 062-431-6339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 전세난 8년來 가장 심각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도 5년만에 최고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등 전국의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전세 수급 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매매시장은 공급 얼어붙었지만 전세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으면서 전세가격(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점점 높아져 아파트값 상승기였던 2005~2006년에 육박하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KB국민은행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인 지난 3일 전세 수급 상황은 심각하다. 1만6530개 부동산 중개업

소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80.7%를 차지했고, 공급이 많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나머지 16.9%는 공급과 수요가 엇비슷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통상적으로 12~1월은 이사가 수요가 거의 없어 매매는 물론 전세 시장도 안정 상태를 보이면서 수요가 약간 많거나 일주 균형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사뭇 다른 양상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57.1%로, 2006년 3월(57.2%) 이후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88.32 (+7.51)
▼ 코스닥지수	533.67 (-0.31)
▲ 금리 (국고채 3년)	3.60% (+0.03)
▲ 원·달러 환율	1,125.10원 (+0.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